

# 주택건설 경기 앞이 안보인다

### 광주·전남업체 지난해 587세대 공급... 사상 최악 을 계획물량 8,600세대... 얼마나 공급될 지 미지수

지난해 광주·전남 주택건설업체들이 지역에 공급한 주택물량이 IMF때보다 적은 사상 최악을 기록하는 등 주택시장의 한파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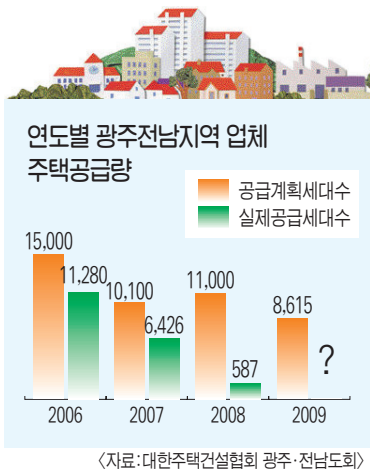
더구나 올해는 불황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다수의 지역업체들이 공급 계획물량을 내놓기는 했지만 실제로 얼마나 공급할지에 대해서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가 14일 내놓은 '2008년 지역주택시장 분석 및 2009년 주택경기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주택공급 물량은 8천660세대로, 이 가운데

지역 업체가 공급한 물량은 587세대(6.7%)에 불과했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때 1천32세대를 공급했던 것보다 낮은 사상 최악의 실적으로, 지역업체들은 주택경기가 가라앉으면서 당초 1만1천세대 공급 계획을 변경해 5.3%만 공급하는데 그쳤다.

지역업체들의 계획 대비 주택공급률은 외환위기 이후 크게 늘어 ▲1999년 83.4%(8천792세대) ▲2000년 87.5%(8천691세대) ▲2001년 106.0%(1만330세대) ▲2002년 92.28%(7천382세대) ▲2003년 230%(1만6천95세대) 등으로 급신장을 보였다.



(자료: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이후에도 ▲2004년 94.29%(7천449세대) ▲2005년 57.7%(6천345세대) ▲2006년 75.2%(1만1천280세대) ▲2007년 63.62%(6천426세대) 등으로 다소 낮아졌지만 계획량의 절반 이상을 꾸준히 공급해왔다.

광주·전남지역 주택건설업체의 타 지역에 대한 공급량도 전년도 대비 52.3%(5천501세대)에 불과했다.

이 추세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으로, 지역 주택업체는 올해 8천615세대 공급을 계획하지만 지난해 미분양 물량만 1만3천277가구에 이르고 주택공사와 타 지역 건설업체의 공급물량(1만2천200세대)과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관계자는 "전망이 불투명해 신규사업자 등록이 감소하고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한 업체도 23곳에 달한다"며 "양도소득세 완화 등 거래 활성화 방안과 함께 주택업체의 유동성 지원 등 추가 부양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스스로 연주하는 피아노 등장

피아노에 자동연주기능을 추가해 만들어졌다.

14일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 광장에 스스로 연주하는 자동피아노가 등장.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고 있다. 이 피아노는 일반 그랜드 피아노에 자동연주기능을 추가해 만들어졌다. (광주 신세계 제공)

## 개미군단이 돌아온다

떠났던 개미들이 코스닥시장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국내의 정세에 대한 기대로 다양한 테마주가 형성되고 있고, 최근 증시에서 대형주보다는 실적 부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형주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4.97포인트(1.28%) 오른 1,182.68로 마감한데 반해 코스닥지수는 9.50포인트(2.68%) 급등한 364.63으로 거래를 마쳐 코스피 상승률을 앞질렀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도 코스피지수는 약 4% 오르는 데 그치고 있으나 코스닥지수는 8% 넘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코스닥을 떠났던 개인투자자들이 복귀하고 있기 때문으로 개인들은 코스닥시장에서 지난해 24일부터 이달 8일까지 9일 연속 '팔자'에 나서 1천439억원을 순매도했으나 9일부터는 400억원에 가

까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증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것은 증시자금 동향에서도 드러난다.

개인의 증시 대기성 자금을 보여주는 고객예탁금은 12월 기준으로 11조276억원으로, 지난해 5월 이후 최대 규모로 늘었다.

보유주식 등을 증권사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융자 잔고와 주식을 사들이고서 결제일까지 자금을 계좌에 입금하지 않아 발생한 외상 주식 매입대

### 코스닥시장 속속 복귀 9일부터 400억 매수세

금인 위탁자 미수금도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해 12월 기준으로 각각 1조5천227억원, 1천772억원을 나타내고 있다.

증권 전문가들은 개인들이 코스닥시장으로 몰려드는 원인을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정책을 펴면서 다양한 테마주가 형성되고 있고, 어닝시즌을 맞아 대형주에 비해 실적에 덜 민감한 소형주로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증권유관기관 명칭 변경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등 증권유관기관들이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을 계기로 이름을 바꿔 난다.

국내 증권 선물과 현물 거래를 총괄하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한국거래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본시장의 공공기관으로 거듭 태어난다.

증권회사 이익단체인 증권업협회는 자산운용협회와 한국선물협회를 아우르는 '한국금융투자협회'로, 증권에탁결제원은 '한국에탁결제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건설 14~18개·조선 2~3개 구조조정

### 채권단, 111개 업체 신용평가 잠정결론

채권은행들이 건설사와 중소 조선사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를 한 결과 건설사는 14~18개, 조선사는 2~3개 업체가 구조조정(워크아웃·회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14일 금융감독 당국과 채권단 등에 따르면 주채권은행들이 92개 건설사와 19개 조선사 등 111개 업체에 대해 신용위험 평가를 잠정 마무리한 결과가 이같이 나타났다.

국민은행의 경우 주채권 은행을 맡은 건설업체 14개 모두 B등급 이상을 매긴 것으로 전해졌고 신한은행도 11개 업체에 대해 당장 구조조정이 필

요하지는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도 주거래 업체인 롯데건설, SK건설, 금강기업 등 3곳에 대해 B등급 이상의 평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 역시 5개 건설사에 대해 점검한 결과 별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

가장 많은 업체인 30개 건설사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의 경우 아직 심사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농협도 13개 건설사에 대해 최종 심사를 진행 중이다.

조선사의 경우 19개 가운데 2~3곳

이 구조조정 대상 명단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은행들은 조선사들이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갈 경우 해외 수주에 대해 계약 파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채권 은행들은 오는 16일까지 등급 분류를 마치고 금융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견 조정을 거친 뒤 오는 23일까지 구조조정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부실징후기업(C등급) 판정을 받은 기업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절차를, 부실기업(D등급)은 회출 절차를 밟는다. /연합뉴스

### 은행 개·폐점시간

### 4월부터 30분 당겨

은행 개·폐점 시간이 30분씩 단축되는 '영업시간 변경' 시행일이 4월1일로 당초보다 2개월 늦춰졌다.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은 13일 노조 대표자 회의를 열고 은행 영업시간 변경안 시행시기를 2개월 연기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은행 영업시간은 현재 오전 9시30분~오후 4시30분에서 오는 4월1일부터 오전 9시~오후 4시로 30분씩 앞당겨진다. /연합뉴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주)국제보청기 10621-227-9940  
충장점 (주)국제보청기 10621-227-9970

**영광굴비 설날맞이 직송판매**  
고마운분들께 마음을 담아 선물하세요!

謹賀新年

전통주사면 헌정에서 직접 제작해 배송해 드립니다. 택배비 무료.

문의전화: 011-351-0094

팩시밀리: 011-351-0094  
팩스: 011-351-0094

**동성수산**  
TEL: 011-351-0094  
FAX: 011-351-0094